

# 괄호매김 역설과 층열 - 의미역 할당

이 성 규

(시립인천전문대학)

Lee, Sung-Kyu (1997). *Bracketing Paradoxes and Tier-Theta Role Assignment*. *Linguistics*, 5-1, 57-73. This paper aims to survey the problems of bracketing paradoxes and provide an alternative based upon the autosegmental analysis, Morpheme Tier Hypothesis, proposed by McCarthy. Unlike previous studies, I argue that morphological structure is autosegmental and therefore that there is no bracketing paradoxes. The paradox of a word like *ungrammaticality*, in which *un-*(Class II Prefix) attached before *ity*(Class I Suffix), is not really paradoxical under an autosegmental approach.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In section two I provide a brief explanation of Level Ordering Hypothesis and the phenomenon of bracketing paradoxes in morphology. In section three I examine the validity of Affix Raising proposed by Pesetsky, and survey the autosegmental representation provided by McCarthy and Katamba in order to resolve bracketing paradoxes that raised in single words. However, I conclude that Pesetsky's theory is not amenable to resolve bracketing paradoxes. In section four I deal with bracketing paradoxes that raised in compounds. In particular, I try to examine the paradoxes involving compounds, such as 'transformational grammarian', by approaching to the  $\theta$ -marking properties of their heads, with the non-head element of the compound receiving the  $\theta$ -role. (Junior College of Incheon)

## 1. 서 론

형태론 이론에서 가장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괄호매김 역설(bracketing paradoxes)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괄호매김역설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 역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괄호매김 역설은 단계유순가설(Level Ordering Hypothesis)을 위반하는 데서 발생된다. 단계유순가설이란 Siegel(1974), Allen(1978), Kiparsky(1982), Mohanan(1986)들이 제안한 이론으로서 내용은 I종 접사가 II종 접사보다 먼저 첨부되기 때문에 II종 접사는 I종 접사보다 바깥쪽에 위치한다는 이론이다.

접사부가에 대한 이러한 단계유순이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파생어일지라도 형태음운론적 기준과 의미론적 기준에 의한 괄호매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역설이 발생된다.

이에 대한 예로서 ungrammaticality와 같은 파생어는 동일한 형태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형태음운론적 기준에 의한 [un[[grammatical]jity]]와 의미론적 기준에 의한 [[un[grammatical]jity]]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괄호매김이 요구되므로 역설이 발생되고 있다.

사실 괄호매김 역설의 발생원인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형태구조를 괄호매김에 의존하여 표시하는데서 기인된다. 그러므로 역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괄호매김이 아닌 다른방법에 의해서 형태구조를 표시할 수 있다면 지금 까지 논란 된 괄호매김 역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형태구조를 괄호가 아닌 McCarthy(1979, 1981)의 자립분절음적 층열에 의해서도 충분히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은 괄호매김 역설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주장을 위해 본 논문은 단일단어와 접사가 부가된 합성어의 괄호매김 역설을 구분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단일어의 괄호매김 역설에 대해서는 McCarthy(1979, 1981)의 제안과 Katamba(1993, 1995)와 Falk(1991)의 자립분절음적 구조를 검토하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그리고 접사부가가 이루어진 합성어의 역설문제는 McCarthy(1986)의 층열융합 과정에 의해서 결과된 단선적 CV층열을 전제로 하여 층열 - 의미역 할당(Tier - Theta Role Assignment)의 접근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본 논문은 제 2절에서는 괄호매김 역설의 현상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제 3절에서는 단일단어의 괄호매김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Pesetsky(1985)의 접사인상이론과 자립분절음적 표시를 비교해 보며, 또한 CV층열 표시에 의해서 역설의 해결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제 4절에서는 접사부가가 이루어진 합성어의 괄호매김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Williams(1981)의 어휘적 관련성 이론에서 제기된 핵과 비핵의 개념을 검토해 본 후에, 합성어의 핵(head)의 의미역 할당과 그 의미역을 받은 비-핵(non-head)의 관계를 구명하므로 합성어에서 제기되는 괄호매김 역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2. 괄호매김 역설 (bracketing paradoxes)

본 절에서는 괄호매김 역설의 발생 원인을 어휘 형태론적 관점에 의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괄호매김 역설이란 하나의 동일한 단어나 합성

어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성분구조를 갖는데서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1) a. [un[[grammatical]ity]]                      b. [[un[grammatical]]ity]  
 (2) a. [transformational [[grammar]ian]]     [model[[theoret]ic]]  
       b. [[transformational[grammar]]ian]     [[model{theoret}]ic]

위에서 제기된 예들 중에서 (1a)와 (2a)에 속한 예들은 형태음운론적으로 유도된 구조들이며, (1b)와 (2b)에 속한 예들은 의미론적으로 유도된 구조들이다.

Siegel(1974)은 (1a)의 경우에서, -ity는 I종 접미사(Class I Suffixes)이므로 일반적으로 un-과 같은 II종 접두사(Class II Prefixes) 보다 앞서서 어간에 붙여진다는 단계유순가설을 제시한바 있다.

그러므로 Siegel(1974)의 이론에 의하면 (1a)의 구조는 형태음운론적 기준에 적합한 적형의 구조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1a) 구조가 비록 형태음운론적 기준에는 적합한 적형의 구조일지라도 un-은 일반적으로 명사의 앞이 아니라 형용사 앞에 부가된다는 문법적 정보에 의해서 (1a)에서처럼 un-이 grammaticality 앞에 부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1b)와 같은 구조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렇지만 (1b)의 구조는 II종 접두사인 un-이 I종 접미사인 -ity보다 앞서서 어간에 부가되므로 인하여 단계유순이론을 위반하는 괄호매김 역설이 발생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1b)의 구조는 비록 괄호매김 역설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단어 ungrammaticality는 ‘비문법적이라는 특질’(the property of being ungrammatical)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미론적 관점에서 (1b)와 같은 괄호매김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2ab)의 경우는 단어보다는 큰 단위로서 구 또는 합성어에서 발생하는 괄호매김 역설에 대한 예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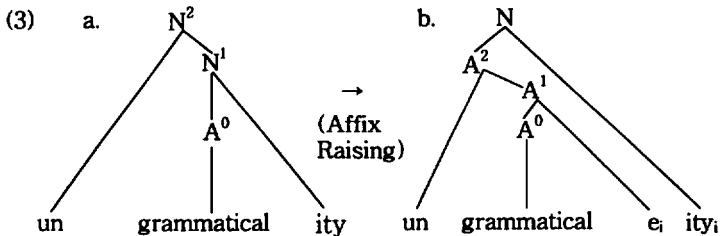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형태음운론적 괄호매김을 위해서는 (2a)에서와 같이 I종 접사인 -ic과 -(i)an이 합성 이전에 부가되어야 하지만, 의미론적으로 ‘모형 이론에 관련된’(related to model theory) 것과 ‘변형 문법의 연구자’(a practitioner of transformational grammar)를 의미할 때는 (2b)와 같은 괄호매김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설이 발생된다.

### 3. 단일단어의 팔호매김 역설

본 절에서는 (1)의 ungrammaticality와 같은 단일단어에서 발생하는 팔호매김 역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Pesetsky(1985)가 제시한 접사인상 이론이 설명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둘째 McCarthy(1979, 1981)와 Katamba(1993, 1995)가 제시한 자립분절음적 표시를 기본으로 하여 Falk(1991)의 구조를 비교검토하고, 셋째 Falk(1991)의 팔호매김 역설에 대한 자립분절음적 표시의 문제점에 대해 본 논문은 McCarthy(1979, 1981)의 CV 층열에 의해 역설의 문제 해결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 3.1. Pesetsky의 접사인상(affix raising)

통사론의 양화사 인상 이론에 의해서 S-구조를 Move- $\alpha$ 에 의해서 음운 형태(PF)와는 다른 논리형태(LF)로 바꿀 수 있다는 Pesetsky(1985)의 제안을 실제로 ungrammaticality에 적용하여 접사인상(affix raising)을 하면(3)과 같은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 때 (3b)는 접사인상으로 인해  $\alpha$ -이동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동에서 흔적( $e_i$ )을 갖는다.



Pesetsky의 위와 같은 구조는 (3a)에서 단계유순가설의 형태론적 제약을 위반하지 않으며, (3b)에서는 접사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un-은 일반적으로 형용사 앞에 부가된다는 통사제약도 만족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3)과 같은 구조는 일단 ungrammaticality에 대해 단계유순가설 적용 결과로 발생하는 팔호매김 역설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3)의 구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3)의 구조는 ungrammaticality 그 자체의 역설은 해결해 주지만 그와 동일한 un-X-ity의 구조인 비적형의, 어휘부에 존재하지 않는 \*unagility, \*unsincerity, \*uncivility, \*unpurity, \*unfertility, \*unregularity 등과 같은 형태의 도출을

저지 할 수 있는 제약이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적형 형태의 도출에 대한 설명적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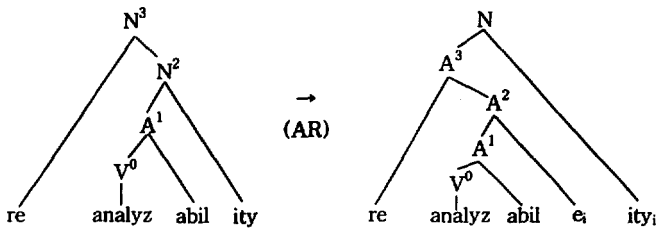
Pesetsky(1985)의 접사인상 이론은 또한 -ability와 같이 이중의 접사인상이 요구되는 괄호매김 역설을 해결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괄호매김 역설은 접두사와 접미사가 여기에 첨부되어 발생되지만 -ability의 경우는 접미사 -able과 접미사 -ity, 즉 두 개의 접미사가 합체되어 발생하는 역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reanalyzability와 같은 형태구조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이 단어를 괄호매김 구조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4) a. [re[[[analyz]abil]ity]]
- b. [[[re[analyz]]abil]ity]

(4)의 구조는 I 종 접미사 -able과 I 종 접미사 -ity가 접사용합(affix conflation)되어 괄호매김 역설이 발생되고 있다. (4a)로부터 (4b)를 갖기 위해 접사인상을 적용하면 Bedecker(1991:115)가 제안한 바 있는 (5)의 구조를 갖는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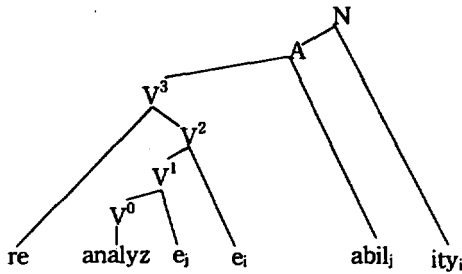
1. Aronoff와 Sridhar(1983)는 -able을 중립접미사 (neutral suffix)로 분류한다. 그러므로 I 종 접미사 -ity가 첨부되는 단계유순이론의 상황에서는 -able을 II종이 아닌 I종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한다. 결과적으로 -able은 주장세가 analyze에 analyzable과 같이 이동한다고 주장한다.

2. Bedecker(1991:115)는 (5)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ity를 먼저 인상시키는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위의 접사인상 수행도에서 유의할 점은 re-는 하위범주화된 [-v]이며, -ity가 접사인상한후 abil-의 상위절점 N과 re-의 범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구조에 절점 A<sup>3</sup>를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그러나 연쇄공전조건<sup>3</sup>에 의하면 -able 다음에 -ity가 와야 하는데 (5)의 구조는 2중 접사인상으로 인하여 -ity<sub>i</sub> 다음에 -abil<sub>j</sub>의 순서로 나타나므로 연쇄 공전의 순환성을 국부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Pesetsky(1985)의 접사인상이론은 괄호매김 역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이론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절의 자립분절음적 표시에 의해서 해결 될 수 있다고 본다.

### 3.2. 자립분절음적 표시(autosegmental representation)

원래 McCarthy(1979, 1981)의 자립분절 이론은 셈어(Semitic language)와 같은 비연쇄구조(nonconcatenative structure)를 가진 언어에 적용을 목적하였다. 그러나 영어는 여러 면에서 셈어와는 다르지만 영어의 형태구조에 대한 단순한 단선적인 접사부거나 항목배열(Item-and-Arrangement)의 접근 방법으로는 괄호매김 역설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성조, 강세, 모음의 길이 등 운율적 특질과 같은 다선적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McCarthy의 자립분절음적 접근방법은 괄호매김 역설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McCarthy(1981)는 아랍어 단어의 3자음 어근(triliteral root) ktb 'write', fhm 'understand', drs 'study', ksr 'break'등에 문법적 범주를 나타내는 모음연쇄가 삽입된 비난(binayan)을 제안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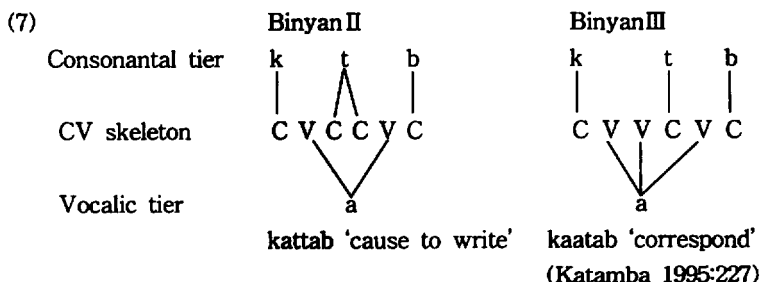
본 논문은 ungrammaticality와 같은 단일단어의 형태소 구조표시에 McC-  
arthy가 제시한 비난의 구조들 중에서 그 일부를 활용하고자 한다. Katamba  
(1995:224)는 McCarthy의 비난을 아래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

3. 연쇄공전조건(string vacuousness condition)이란 양화사 인상(Quantifier Raising)의 출력형의 종단연쇄(terminal string)는 입력형의 종단연쇄와 일치해야 한다는 제약이다.

(6) Binyan

I	katab 'he wrote'	fahim 'he understood'
II	kattab 'cause to write'	fahham 'cause to understand'
III	kaatab 'correspond'	faahim 'understanding'(adj)
IV	?aktab 'write'	?afham 'understand'
VI	takaatab 'write to each other'	tafaaham 'understand someone'
VII	?iktatab 'write, be registered'	?iftaham 'underst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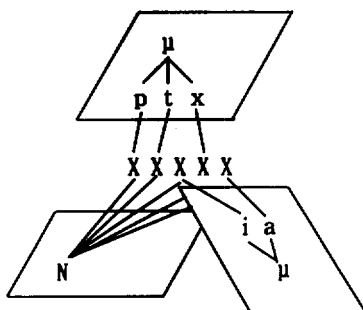
(6)의 binyan들 중에서 II와 III을 총열구조로 나타내면 (7)과 같다.



(7)의 총열구조는 학자에 따라 용어상 차이는 있지만 자음총열(Consonantal tier 또는 Root tier) 골격총열(Skeletal tier 또는 CV Skeleton)과 모음 총열(Vocalic tier)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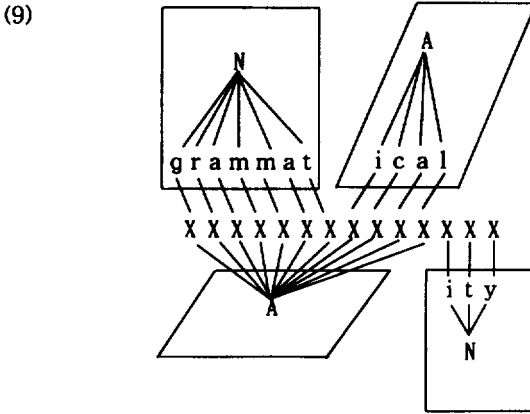
Falk(1991:28)는 히브리어(Hebrew)의 3자음어근 형태소 (triconsonantal root morpheme) ptx'open'에 문법적 범주를 나타내는 모음을 삽입한 ptixa 'opening'의 총열구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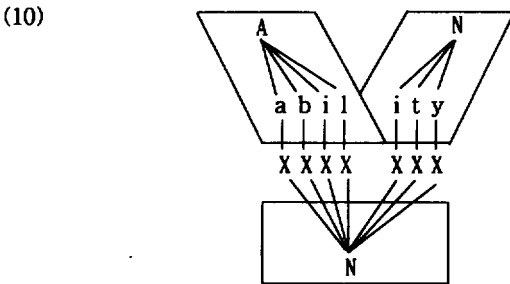


Falk(1991)가 제시한 (8)의 구조와 Katamba(1995)의 (7)의 구조를 비교할 때 자유충열과 모음충열을 상호간 사용한 점은 같지만 Falk의 구조상 차이점은 CV 형판 대신에 X 형판을 사용한 점이며, McCarthy(1979, 1981)의 구조에는 없는 문법적 범주인 N(명사) 충열을 사용한 점이 독특하다고 보며, 새로운 제안이라고 판단된다.

Falk는 (8)의 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괄호매김 역설의 문제가 되었던 ungrammaticality에 대해 (9)와 같은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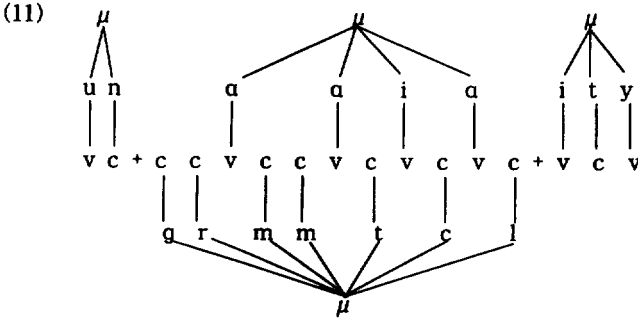
그리고 Falk(1991)는 Pestsy(1985)의 (5)의 구조에서 연쇄공전 규칙을 위반하는 -ability와 같은 접사용합의 괄호매김 역설에 대한 문제도 (10)의 자립분절음적 표시에 의해서 해결하고 있다.





3.3. CV층열 표시에 의한 대안

괄호매김 역설을 일으키는 ungrammaticality와 -ability와 같은 형태구조를 괄호매김 방식에 의하지 않고 Falk의 (9)와 (10)과 같은 자립분절음적 표시에 의해서 나타낼 때 형태구조상 역설은 물론 발생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Falk의 (9)와 같은 구조는 접두사 un-이 표시되지 못하는 구조상 결함이 있다. 그리고 (10)의 구조 또한 간결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ungrammaticality와 -ability의 형태구조를 한 단어내의 형태소는 각자 별도의 층열을 가진다는 McCarthy(1981)의 형태소 층열가설(Morpheme Tier Hypothesis)에 의해 표시하는 새로운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ungrammaticality의 형태구조에 대해 본 논문이 (11)에서 제시한 구조는 Falk(1991)가 (9)에서 제시한 구조보다 간결성이 있으며, 접사 un-을 표기할 수 있는 좀더 포괄적인 구조라고 본다. 그러나 (11)의 구조는 다층적 구조로서 실제로 발음이 실현되는 과정에서는 단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1)의 구조를 단선화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휘 형태론에서도 단어의 이러한 내부구조를 규약하는 규칙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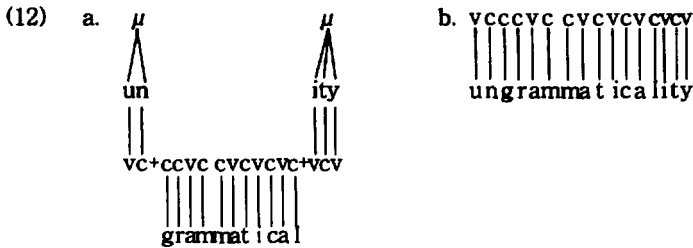
어휘 형태론에서는 규칙적용에 의한 형태론적인 조각이 끝나면 형태론 모형에 부합하기 위해 내부괄호를 삭제하는 괄호삭제규약<sup>4</sup>(Bracket Erasure Convention)이 적용된다. Kiparsky(1982b)가 지적한 이 내부괄호는 자립분절음적 구조에서는 각기의 자립분절층열(tier)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1)과 같은 자립분절음적 표시에도 Kiparsky가 제안한 괄호삭제와

4. 괄호삭제규약(Bracket Erasure Convention)은 Kiparsky(1982b:140)가 제안한 규약으로서 내용은 '각 단계의 마지막에서 내부괄호를 삭제하라는 규칙이다.' 'Internal brackets are erased at the end of a level.'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이 곧 McCarthy(1986)가 제안한 층열융합(tier conflation)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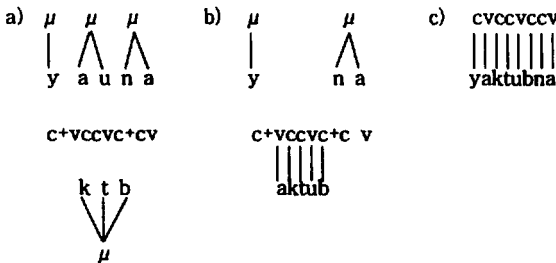
McCarthy(1986)가 제시한 아랍어 단어인 *yaktubna* 'they(fem.) are writing'의 층열융합과정<sup>5</sup>을 (11)의 구조에 적용했을 때 우리는 (12)와 같은 구조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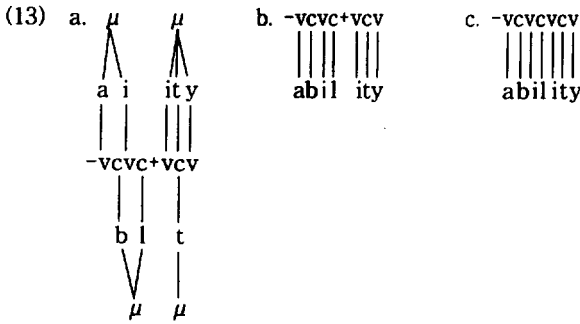


괄호매김 방식이 아니라(12b)와 같은 단선적 층열구조에 의해서 ungrammaticality의 형태구조를 표시 할 때 비로소 괄호매김 역설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Pesetsky(1985)의 이론에서 논란이 되었던 -ability와 같은 괄호매김 역설에 대해서 Falk(1991)의 (10)과는 다른 구조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5. McCarthy(1986)가 제시한 *yaktubna* 'they(fem.) are writing'의 층열융합 과정은 아래와 같다.





(13a)는 -ability에 대한 다선적 총열구조의 표시이며, (13b)는 총열융합 과정을 나타내며, (13c)는 총열융합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얻어지는 단선적 CV총열구조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12b)와 (13c)와 같은 총열구조를 ungrammaticality와 -ability의 괄호매김 역설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제안하는 바이다.

#### 4. 합성어의 괄호매김 역설

단일단어보다는 형태 구조가 좀 더 복잡한 접사부가가 이루어진 (2ab)의 transformational grammarian과 같은 유형의 합성어의 괄호매김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성어의 형태구조에 괄호매김이 아닌 자립분절음적 표시가 이루어질 때 구조상으로 역설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의미론적인 역설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합성어의 해과 비핵의 관계를 구명하고 자립분절음적 총열의 관점에서 의미론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비록 문제점은 있지만 비교의 관점에서 해과 비핵의 관계를 제시해 준 Williams(1981)의 어휘적 관련성 이론을 우선 검토하고, 합성어의 역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총열-의미역 할당(Tier-Theta Role Assignment) 방법을 제안하고자한다.

##### 4.1 어휘적 관련성(lexical relatedness)

Williams(1981:245)는 두 개의 어휘항목이 만일 어떤 형태소(morphemes)를 공유하며, 그리고 동시에 같은 의미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그 어휘항목들은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합성어의 괄호매김 역설을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Williams의 어휘적 관련성 이론에서 핵(head)과 비핵(nonhead)의 개념은 어휘적 관련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4) a. If both X and the head of X are eligible members of category C, then  $X \in C \equiv \text{head of } X \in C$   
 b. Nonhead: the highest left branch of a word.  
 c. 'X can be related to Y if X and Y differ only in a head position or in the nonhead position.' Williams(1981:247-261)

물론 단어들 중에는 명사(noun)의 마지막 자음을 유성음화 하여 동사형(breath[θ] → breathe[ð], lifelf → live[v])을 가지는 것과 같이 전연 핵이 없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지만, Williams는 위에서 지적한 대로 핵은 복합어(complex)에서 가장 우측의 부분이며, 비핵은 가장 좌측의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핵의 부분과 비핵의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동일할 때 어휘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 (15) a. macroeconomist  
 b. macroeconomic  
 (16) a. macroeconomist  
 b. microeconomist

우리는(14)의 규칙에 의해서 (15ab)는 핵인 -ist와 -ic을 제외하고 동일하며, (16ab)는 비핵인 macro-와 micro-를 제외하고 동일하므로 이들은 어휘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괄호매김 역설을 일으키는 (15a)의 macroeconomist는 어휘적 관련성에 의해 역설이 해결되고 있다. 즉 (15a)는 '거시경제학자'를 의미하며, \*'거대한 경제학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16b)는 \*'미세한 경제학자'가 아니라 '미시경제학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14c)의 규칙은 '만일 X와 Y가 핵에서만 다르거나 비핵에서만 다르다면 X와 Y는 관련이 있다'고 규정하므로 whitewashed는 white 뿐만 아니라 white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예: whitebait, whiting, White House, 등)와 관련성이 있다고 잘못 주장될 수 있으며, 의미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단어들도 (14c)에 의해서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이 Spencer(1988, 1991)의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17) a. baroque flautist
- b. Modern Linguist
- (18) a. baroque flute
- b. Modern Languages

(14c)에 의해서 (17)과 (18)의 flute~flaut-와 language~lingu-가 핵도, 비핵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 합성어들은 어휘적 관련성이 없다고 잘못된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휘적 관련성 이론으로 합성어의 괄호매김역설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 절의 총열-의미역 할당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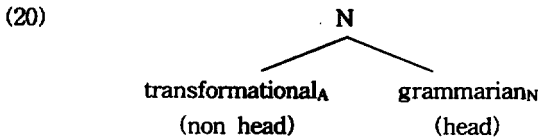
#### 4.2. 의미역 할당에 의한 대안

(2ab)에서 제시된 transformational grammarian의 괄호매김 역설은 아래와 같은 접사부가의 순서에 의해서 역설이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 (19) a. [transformational[[grammar]ian]] : grammar → grammari-  
an → transformational grammarian
- b. [[transformational[grammar]]ian] : grammar → transforma-  
tional grammar → transformational grammarian

본 논문은 합성어 괄호매김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19)와 같은 종전의 괄호매김 방식이 아니라 이미 제시한바 있는 (12b)와 같은 자립분절음적 총열구조를 합성어 형태구조에 적용하고, 그 총열구조에 의미역 할당을 할 때 비로서 역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Williams(1981)의 핵(head)과 비핵(non head)의 규칙인(14ab)를 'transformational grammarian'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합성어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의 구조는 핵(head)이 문법적 범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Williams(1981)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합성어 형

태구조에서 핵은 문법적 범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비핵(non head)에 의미역을 할당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핵인 *grammarians*은 비핵인 *transformational*에게 의미의 방향과 의미역( $\theta$ -role)을 할당 하므로서 '변형문법의 연구가'(practitioner of transformational grammar)를 의미하며, \*'변형하는 문법가'의 뜻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핵인 *grammar* 대신에 *temperature*로 바꾸면 비핵은 그대로 이지만 뜻은 \*'변형온도'가 아니라 금속이 고체상태에서 결정구조가 '변화하는 온도'를 의미하므로 핵이 비핵에게 의미결정에 중요한 의미역을 제공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2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합성어에서 비핵(non head)의 의미는 괄호매김에 의해서 좌우되는 의무적(obligatory)관계가 아니라 핵이 주는 의미역( $\theta$ -role) 관계임을 제안한다. 이에 대한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1) English *grammarians*

- a. 'practitioner(or student) of the grammar of English'
- b. 'grammarians whose nationality is English'

(21)의 English *grammarians*에 대해 (21a)은 '영어문법의 연구가'의 뜻이며 (21b)는 '국적이 영국인인 문법가'이므로 의미상 모호성이 있다. 그러나 (22)와 같이 핵이 *linguist*로 바뀌면 비핵은 그대로 이지만 그 뜻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22) English *linguists*

- a. \*'practitioner (or student) of the linguistics of English'
- b. 'linguists whose nationality is English'

(22a)는 \*'영언어학의 연구자' 뜻으로서 비적형이며 (22b)는 '국적이 영국 사람인 언어학자'를 의미하므로 적형이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합성어의 비핵(non head)의 의미는 괄호매김에 좌우되는 사항이 아니라 핵에 따라 의미상 차이가 발생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형용사에 대한 의미 할당의 면에서 내부논항(internal argument)인 일반명사와 외부논항(external argument)에 의미 표시를 해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사이의 의미역 할당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명사논항의 구분의 중요성을 제안한다. 이에 대한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23) a. English grammar
  - b. grammar of English
- (24) a. the Iraqi invasion of Kuwait ('Iraq's invasion of Kuwait')
  - b. the Russian decision to hold elections  
( 'Russia's decision to hold elections' )

(23)의 명사 grammar는 형용사인 English에 의미역( $\theta$ -role)을 주는 내 부논항이다. 그러나 (24)의 명사 invasion은 명사 grammar와는 다르다. invasion은 외부논항을 의미 표시 해주는 동사(invade)에서 파생된 명사이 기 때문에 the Iraqi invasion은 Iraq에 의해서 (by) 저질러진 침입이므로 of에 의해서 표시되는 NP와 같이 동일한 의미역이라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의미역을 할당해 주는 명사논항의 구별은 괄호매김 역할을 일으키는 형용사의 의미 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판단된다. 즉, 명사는 그 형용사에 의미역의 방향(orientation)을 지시해 주고 또한 그 핵과 관련된 '구획적' 의미역(sect  $\theta$ -role)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획적' 의미역을 확대 적용하면 theoretical physicist, experimental psychologist 와 Southern Baptist 등과 같은 합성어의 괄호매김 역할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Spencer(1991:413)에서 제시된 인칭명사(Personal nouns)인 Southern Finn, Southern Dane, East German의 합성어 괄호매김 역할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괄호매김 역할의 해결을 위해 층열-의미역 할당 이론을 제안하는 바이다.

## 5. 결 론

본 논문은 형태론 연구에 있어서 끊임없이 논란된 문제들 중에 하나인 괄호매김역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했다. 단일단어에서 발생하는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사론의 양화사 인상 이론에 입각하여 S-구조를 Move- $\alpha$ 에 의해 논리형태(Logical Form)로 바꾼 Pesetsky(1985)의 접사인상 이론을 검토했으며, 합성어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Williams(1981)의 어휘적 관련성 이론을 살펴보았지만 크게 만족할 만한 해결방안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McCarthy(1979, 1981)의 자립분절음적 접근방법인 형태소 층열가열(Morpheme Tier Hypothesis)을 채택하여 단일단어의 형태구조를 독립된 층열(Tier)에 의해서 표시했을 때 괄호매김의 과정은 필요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괄호매김역설의 문제도 발생되지 않았다.

합성어의 괄호매김 역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태구조에 대한

일관된 자립분절음적 층열구조의 접근방법의 채택과 함께 합성어의 핵(head)의 의미역( $\theta$ -role) 할당에 대한 접근이 있을 때, 그 역설의 문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사실 합성어 구조에서 핵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핵은 비핵에 대해 의미역을 즐뿐만 아니라 그 의미역의 방향(orientation)도 지시해 주며, 또한 그와 관련된 '구획적' 의미역( $\text{sect } \theta$ -role)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접근이 있을 때 우리는 generative linguist, theoretical physicist, experimental psychologist 와 같은 논란된 합성어의 팔호매김 역설은 더 이상 역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전 상 범. (1995) 『형태론』 서울 : 신아사.
- Allen, M (1978) *Morphological Investigation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Aronoff, M. (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 MIT Press.
- Aronoff, M. and S. Sridhar. (1983) "Morphological levels in English and Kannada:or, Atarizing Reagan." In: J. Richardson, M. Marks, A. Chukerman(eds.).
- Papers from the Parasession on the interplay between phonology, morphology and syntax. Chicago, IL. : CLS 19. 3-16
- Badecker, w. (1991) "Affix Raising and Level Ordering Hypothesis." *Lingua* 83. 103-132
- Chomsky, N. and M.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æper and Row.
- Falk, Y. N. (1991) "Bracketing Paradoxes without bracket", *Lingua* 84. 25-42.
- Halle, M. and M.Mohanana. (1985) "Segmental Phonology of Modern English." *Linguistic Inquiry* 16. 57-116.
- Hoeksema, J. (1987) "Relating Word Structure and Logical Form." *Linguistic Inquiry* 18. 119-126.
- Katamba, F. (1993) *Morphology*. London: Macmillan.
- Katamba, F. (1995) "Skeleta and the prosodic circumscription of morphological domains." *Frontiers of Phonology*. New York: Longman.
- Kiparsky, P. (1982a) "Lexical Morphology and Phonology." In: I. S. Yang (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oul: Hanshin.
- Kiparsky, P. (1982b) *Explanation in Phonology*. Dordrecht: Foris.



- Kiparsky, P. (1983) *Word Formation and the lexicon*. Proceedings of the 1982 Mid America Linguistics Conference.
- Lieber, R. (1983) "Argument Linking and Compounds in English." *Linguistic Inquiry* 2. 251-85.
- McCarthy, J.J. (1979) *Formal problems in Semitic phonology and morphology*. Ph.D. Dissertation. MIT.
- McCarthy, J.J. (1981) "A prosodic theory of nonconcatenative morphology." *Linguistic Inquiry* 12. 373-418.
- McCarthy, J.J. (1986) "OCP effects: Gemination and antigemination." *Linguistic Inquiry* 17. 207-264
- Mohanan, M. (1986) *The Theory of Lexical Phonology*. Dordrecht: Reidel.
- Pesetsky, D. (1985) "Morphology and Logical Form." *Linguistic Inquiry* 16. 193-246.
- Scalise, S. (1984) *Generative Morphology*. Dordrecht: Foris.
- Selkirk, E. (1982) *The Syntax of Words*. Cambridge, MA:MIT Press.
- Siegel, D. (1974) *Topics in English Morphology*. Ph.D. thesis. MIT.
- Spencer, A. (1988) "Bracketing paradoxes and the English lexicon." *Language* 64. 663-682.
- Spencer, A. (1991) *Morphological Theory : An Introduction to Word Structure in Generative Grammar*. Oxford: Blackwell.
- Straus, S. (1982) "On 'relatedness paradoxes' and related paradoxes." *Linguistic Inquiry* 13. 695-700.
- Williams, E. (1981) "On the notions 'lexical related' and 'head of a word'". *Linguistic Inquiry* 12. 245-274.

이성규

402-750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235

시립인천전문대학 영어과

(032) 760-8797